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조 병 왕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소파 이미지와 색면을 통한
내적 휴식의 시각적 연구

- 나의 작품을 중심으로 -

2025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서양화과
진 민 준

소파 이미지와 색면을 통한
내적 휴식의 시각적 연구
- 나의 작품을 중심으로 -

조병왕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5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서양화과
진민준

인 준 서

진민준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25년 6월

심사위원장 박영근 (인)

심사위원 조병왕 (인)

심사위원 임상빈 (인)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논문개요

이 논문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휴식’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제작된 작품들을 내용적 측면과 형식적 측면에서 분석하고 서술한 글이다.

나는 작품에서 현실과 비현실, 존재와 부재의 경계를 넘나드는 표현을 통해 ‘휴식’이라는 개념을 단순한 신체의 쉼이 아닌, 보다 깊고 편안한 내면의 상태로 표현하고자 했다. 작품 속에 자주 등장하는 소파는 일상에서 가장 흔히 접할 수 있는 사물이지만, 나에게 소파는 단순히 몸을 기대는 물리적 대상이 아니다. 그보다는 일상의 짧은 순간 속에서 스스로의 내면과 마주하고, 정신적 안정을 찾을 수 있는 ‘휴식의 공간’으로 존재한다.

작업 과정에서 나는 주로 파스텔 톤의 연한 녹색과 노란색을 사용하여 부드럽고 따뜻한 분위기를 표현하고자 했다. 파스텔 톤의 색채는 시각적으로 편안함을 줄 뿐만 아니라, 보는 이로 하여금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게 하고 정신적 치유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소파와 배경 사이의 경계를 점차 흐려지게 표현한 방식은, 나의 존재가 점점 더 확장되고 내면이 회복되는 상태를 시각적으로 드러내려는 시도였다.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 속에서 우리는 디지털 환경과 치열한 경쟁 구조 속에 놓이며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피로를 겪고 있다. 매일 같이 쏟아지는 정보와 타인과의 끊임없는 비교와 경쟁은 일상 속에서 우리를 정신적 소진(burnout)¹⁾ 상태로 몰아넣는다. 현대인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피로는 누적될 경우 삶의 질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우울증과 같은 정신 건강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나는 오늘날의 개인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1) 정신적 소진(burnout) : ‘번아웃(burnout: 극도의 피로, 연료 소진)’과 증후군의 합성어로, 어떤 일에 몰두하던 사람이 극도의 피로를 호소하며 무기력해지는 증상을 이른다.
<https://ko.dict.naver.com/#/entry/koko/8929b5cb4d745b85813111bec9295146>

로 ‘휴식’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많은 현대인은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쉴 때조차 끊임없는 자기 검열과 사회적 압박 속에서 편히 쉬지 못하고 내면의 회복과 휴식에 인색한 경향이 있다. 나 또한 어린 시절, 맞벌이 부모님으로 인해 외부 환경에 자주 노출되었고 그로 인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다. 부모님이 돌아오시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진정한 ‘쉼’을 경험하지 못했으며, 그 속에서 스스로 쉴 수 있는 공간을 찾아야 했다. 이러한 개인적인 경험은 나의 작업에 자연스럽게 반영되었고, 반복되고 분주한 일상 속에서 나만의 휴식의 방식을 탐색하고 그 감정을 예술로 시각화하고자 했다.

이 논문에서 나의 작업이 형성되어 온 과정을 되짚어보고, ‘휴식의 공간’이라는 주제를 시각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내가 어떠한 조형적 접근을 시도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작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며 나의 예술적 표현이 스트레스와 긴장 속에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잠시나마 현실로부터 벗어나 내면의 회복과 정신적 치유를 경험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II. 본론	3
1. 작품 내용 연구	3
1) 현대인의 스트레스와 휴식의 필요성	3
2) 휴식의 개인적 의미와 역할	7
2. 작품 조형 연구	11
1) 소파 이미지를 통한 휴식 공간 연출	11
2) 휴식과 색채와의 관계성	16
3) 단색 색면이 주는 의미	20
3. 작품 분석	23
III. 결론	35

참고문헌

ABSTRACT

작 품 목 차

[작품 1] <아무것도 아니야>, 97x130.0cm, oil on canvas, 2023

[작품 2] <Rest>, 53x33.4cm, oil on canvas, 2024

[작품 3] <Rest 1>, 60.6x72.7cm, oil on canvas, 2023

[작품 4] <Rest 2>, 60.6x72.7cm, oil on canvas, 2023

[작품 5] <Rest 3>, 60.6x72.7cm, oil on canvas, 2024

[작품 6] <Rest 4>, 72.7x116.8cm, oil on canvas, 2024

[작품 7] <Rest 5>, 72.7x116.8cm, oil on canvas, 2024

[작품 8] <Rest 6>, 60.6x72.7cm, oil on canvas, 2024

[작품 9] <Rest 7>, 53x65.1cm, oil on canvas, 2024

도 판 목 차

[도판 1] Edward Hopper, <Nighthawks>, 84.1x152.4cm, oil on canvas, 1942

[도판 2] 본인작업 에스키스, 21x29.7cm, digital print, 2023

[도판 3] 본인작업 에스키스, 21x29.7cm, digital print, 2024

[도판 4] René Magritte, Personal Values, 77.5x100cm, oil on canvas, 1952

[도판 5] Wolfgang Laib, <Pollen from Hazelnut>, 5 jars of hazelnut pollen
dimensions variable, 2002

[도판 6] 지석철, Time, Memory, and existence, 72.6x90.9cm, oil on canvas,
2016

I. 서론

오늘날 대부분의 현대인은 기술, 경제, 정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급속도로 변화하는 복잡한 환경 속에서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 일상적 환경의 변화는 개인에게 정신적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육체적 피로까지 초래하는 주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자아 힐링(Self-Healing)은 개인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자아 힐링은 단순히 외부의 도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적합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실천함으로써 정신과 육체를 스스로 돌보는 과정을 포함한다. 자아 힐링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내면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명상이나 요가,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활동은 대표적인 자아 힐링 방법으로 개인에게 심리적 안정감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미술이나 음악 같은 창작 활동, 혹은 자신의 감정을 글로 표현하는 행위 또한 효과적인 자아 힐링 수단이 될 수 있다.

결국, 자아 힐링은 단순히 스트레스 해소를 넘어 자신의 삶을 보다 주체적이고 풍요롭게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현대인은 자아 힐링을 통해 외부 환경의 압박 속에서도 자신만의 안정된 균형을 모색하고 지속 가능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

삶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고 마음의 안정을 찾아 자기성찰과 내면을 탐구하는 일의 중요성은 점점 더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중한 업무와 책임감에 압도되어 정작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 시간을 갖기 어렵다. 특히 잠깐의 휴식조차 스스로에게 죄책감을 유발하며, 오히려 휴식을 계획

하고 실천하는 데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현상은 현대 사회가 강조하는 생산성과 효율성 중심의 문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개인이 자신의 필요를 뒤로한 채 외부의 기대에 부응하려는 경향에서 나타난다. ‘휴식’은 더 이상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삶의 균형을 유지하고 건강한 정신과 육체를 돌보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재인식되어야 한다.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는 것은 나태함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본질적인 과정임을 받아들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나는 현대인의 복잡한 현실과 책임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며, 스스로 설정한 삶의 틀 안에서 살아왔다. 이 틀은 나의 가치관, 목표, 그리고 생활 방식을 기반으로 한 자발적인 결정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무의식적으로 쌓인 삶의 피로는 나로 하여금 자기애와 자아 힐링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게 했다. 이 깨달음은 내가 세운 틀을 무조건 고수하는 것이 능사가 아님을 알게 해주었으며,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태도와 자세의 중요성을 일깨워주었다. 이에 나는 회화적 접근을 통해 내면의 변화를 시각적으로 탐구하고 표현하기 시작했다.

일상 속에서 소파는 사람들에게 편안함과 안식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가구 중 하나이다. 우리는 잠깐의 휴식을 위해 폭신한 소파에 몸을 맡기고, 긴장된 근육을 이완시키며, 책을 읽거나,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때로는 텔레비전을 시청하며 시간을 보낸다. 소파는 이러한 일상의 순간들을 통해 단순한 가구를 넘어, 개인에게 작은 쉼터이자 심리적 안식처로 기능한다. 대부분의 아파트나 주택의 거실에 놓여있는 소파는 그 존재만으로도 휴식의 상징이 되며, 지극히 평범하고 사소해 보일지라도 자기 회복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소파에 홀로 앉아 긴장을 풀고 사색에 잠기는 짧은 순간은, 현대인의 삶 속에서 휴식과 자기성찰의 가치를 다시금 일깨워준다.

나의 작업은 소파 이미지를 통해 ‘휴식’이라는 공간과 시간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려는 시도이다. 단순히 소파를 묘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회화적 과정을 통해 나 자신은 물론 관람자들에게도 사색과 휴식을 위한 공간을 제안하고자 한다. 소파가 지닌 일상의 상징성과 그로부터 환기되는 감정들을 통해 삶 속에서 균형과 평온을 되찾는 순간을 경험하길 바란다.

이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본론 제1장에서는 현대인이 인식하는 휴식의 개념과 그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휴식’ 과 ‘고독’ 이 나의 작업에서 어떻게 개인적인 의미로 다루어지는지를 탐구한다. 제2장에서는 나의 작업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작가의 사례를 통해, 작품에 등장하는 소파 이미지의 상징성과 더불어 휴식과 색채의 관계, 단색 색면이 지니는 조형적 의미에 대해 분석한다. 제3장에서는 앞선 논의를 바탕으로, 나의 작업이 ‘휴식의 공간’ 을 어떻게 시각적으로 구현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휴식의 공간’ 이라는 주제에 관한 연구 배경을 정리하고 본 작업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향후 작업의 방향성 및 기대를 제시하고자 한다.

II. 본 론

1. 작품 내용 연구

1) 현대인의 스트레스와 휴식의 필요성

휴식은 인간의 삶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육체적 피로를 회복시켜 줄 뿐만 아니라, 정신적 안정을 제공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나 나는 특히 한국 사회에서 휴식에 대한 인식한 태도가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생각한다. 1960년대 이후 급격한 산업화와 경제성장은 도시 환경의 변화를 촉진시켰고, 동시에 경쟁 중심의 교육과 사회 구조를 강화시켰다. ‘좋은 대학이 곧 좋은 직장, 좋은 직장이 곧 안정화된 삶’이라는 사회적 통념이 사람들의 의식 깊숙이 자리 잡게 되었다.

또한,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해 현대인은 초연결(hyper-connectivity) 상태 속에서 끊임없이 정보와 자극을 소비하고 있으며, 이는 오히려 정신적 여유를 박탈하고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과 SNS의 확산은 지속적인 비교와 자기 검열을 유도하며, 현대인으로 하여금 심리적 피로감과 정서적 불안을 느끼게 만든다. 그 결과 ‘번아웃(burnout)’ — 과도한 업무나 자기 압박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으로 극심한 탈진 상태에 이르는 현상 — 을 경험하는 이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경쟁 중심의 사회 구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이 스스로를 몰아붙이는 현실에서의 휴식은 삶의 균형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기보다는 종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이러한 경향은 한국 사회의 특수한 문화적 특징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정보화와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현대인은 한편으로는 지구화된 세계와 소통하며 살아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나친 경쟁과 속도에 강박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상품(부품)의 국적이 없어지고 인터넷을 통해 국가나 영토의 물리적 경계를 넘어선 가상 공간과 지구촌 시대 속에 사는 현대인들은, 가상 현실의 무안한 폭주와 욕망의 유목적 탈주의 속도에 무력감을 느끼게 되는 것 같다. 전자기술 공학의 발전과 지식정보의 유통, 경제적 지구화와 전 지구적 생태계의 위기, 욕망의 기호 생산과 새로운 소비 형태의 출현, 삶의 의미와 내파적 함열(陷裂)과 그 의미 생산의 인터페이스적 발신은, 현대인으로 하여금 한편으로는 지역사회와 세계사회가 그물망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의식, 즉, 지역과 세계, 특수성과 보편성, 중심과 탈중심의 이중 교배적 삶의 질서를 체험하게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질주와 파열적 존재소실, 분열적 속도와 욕망의 편집 속으로 빠져들게 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경쟁과 불안, 공격과 분노, 질주와 도피, 경제적 욕구 충족과 삶의 허무감, 히스테리와 기관-신경증의 증가 등 다양한 병리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이 가운데 많은 증후들이 실은 마음의 병이라고 할 수 있는 삶의 의미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물질적 안락과 소비,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는 가운데 현대인은 상실감, 불안, 피로감, 우울증, 강박증, 의존감, 인간관계의 위기, 자신의 존재감의 혼돈 및 자기부정 같은 가치 혼란, 정신적 위기로 인한 실존적 고통을 느끼고 있다. 내적인 갈등과 실존적 욕구의 좌절에서 비롯되는 이러한 현상은 프랑클이 말하고 있듯이 단순한 ‘심인성 신경증’이 아니라 ‘정신성 신경증’과 연관된 것이다. 이러한 정신인성 병, 즉 마음의 병은 앞으로도 더욱 증가 될 것으로 보인다.”²⁾

앞서 언급한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현대인은 이러한 사회적 흐름 속에서 극심한 정신적 피로뿐만 아니라 실존적 공허감까지 경험하고 있다. 2008년

2) 김정현, <철학과 마음의 치유>, pp.120-12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자살률은 10년 사이 4위에서 1위로 상승하였으며, 우울증, 조울증, 만성 스트레스 등 정신 건강 문제를 겪는 인구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³⁾ 또한, 한국 근로자의 연평균 근무 시간은 2,256시간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치이며, 독일보다 800시간, 일본보다 약 500시간이 더 많다.⁴⁾ 그에 따라 여가 시간은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성인뿐 아니라 아동과 청소년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실제로 한국 학생들의 학습 시간은 세계 최고 수준인 반면, 행복 지수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해마다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 사회는 짧은 기간 동안 급격한 경제 발전과 경쟁 중심의 문화들을 경험하며 눈에 띄는 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성장의 속도에 발맞추어 살아가는 과정에서 개인의 삶의 질과 정신적 여유는 종종 희생되었다고 볼 수 있다. 물질적 성장만큼이나 개인의 ‘성장’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삶의 질에 대한 고민과 함께 ‘휴식’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게 제기되는 시점이다. 오늘날의 휴식은 단순히 육체적 쉼을 위한 행위에 그치지 않고, 현대인이 자아를 되찾고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본질적이고 필수적인 과정으로 작용하고 있다.

울리히 슈나벨(Ulrich Schnabel, 1962~)은 그의 저서 『휴식』에서 현대인들이 많은 것을 이루고 성취하고 누리기 위해 그 어느 시대보다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한다. 그는 휴식의 본질적 가치를 강조하며 “휴식이란 밀도 있는 순간이며, 오로지 자신만의 시간을 누리는 것”이라고 설명한다.⁵⁾ 이는 단순히 육체적으로 쉬는 차원을 넘어, 심리적 안정과 내면의 성찰이 동반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휴식이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나 역시 인간이 일상을 살아가는 과정 속

3) 위의 책, p.122.

4) 울리히 슈나벨(Ulrich Schnabel) ‘휴식’, p.5.

5) 위의 책, p.34.

에서 짧은 순간이라도 의미 있는 휴식을 경험함으로써, 내면을 회복하고 재정비하는 과정이 삶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2) 휴식의 개인적 의미와 역할

나는 어린 시절, 부모님의 경제활동으로 인해 집에 혼자 있거나 형제들과 오랜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았다. 유치원 시절에는 맛벌이를 하는 부모님이 일찍 데리러 오는 것이 어려워 혼자 남는 일이 잦았고, 종종 언니가 대신 데리러 오는 상황이 반복되곤 했다. 중학교 시절에도 집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방과 후 활동이나 학원 수업에 머무는 시간이 더 길었으며, 그로 인해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되었다.

그런 환경 속에서 나에게 ‘휴식’이란 집으로 돌아와 의자나 소파에 잠시 몸을 기대며 피곤함을 해소하는 짧은 순간에 지나지 않았다. 학원에 가기 전 벤치에 앉아 잠깐 숨을 고르는 일 또한 그러한 휴식의 한 형태였다. 지금 돌아보면 그 순간들은 매우 짧고 사소한 것이었지만, 오롯이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긴장을 풀 수 있었던 진정한 의미의 ‘쉽’이었다고 생각된다. 물론 휴식의 방식은 사람마다 다르다. 누군가는 카페에서 차를 마시거나, 독서를 하거나, 산책을 통해 일상에서 벗어나 자아를 성찰하는 시간을 갖기도 한다. 그러나 나에게 있어 휴식은 그저 소파에 누워 아무것도 하지 않는 단순한 행위였으며, 바로 그 순간이 가장 온전한 쉬의 시간이었다.

울리히 슈나벨(Ulrich Schnabel, 1962~)은 자신의 저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의 힘』에서 “중요한 것은 하루의 리듬을 스스로 결정한다는 느낌을 가지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시간의 주인이 되어야만 한다.”라고 말했다.⁶⁾

6) 울리히 슈나벨(Ulrich Schnabel)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의 힘’, p.48.

또한, “휴식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내 시간의 주인이 되는 느낌이 드는 순간을 뜻한다.” 라고 언급했다.⁷⁾ 울리히 슈나벨의 관점에서 볼 때 나에게 있어 휴식이란 단순한 신체적 쉼을 넘어, 자신과 깊이 마주하는 소중한 시간임을 깨닫게 된다.

이러한 휴식의 경험은 나의 작업에서 ‘소파’ 라는 오브제를 통해 시각적으로 표현되었으며, 이는 내면의 회복과 연결된 상징적 공간으로 표현된다. 휴식은 단순히 육체적 피로를 해소하는 행위를 넘어, 현대 사회에서의 휴식은 정신적 에너지를 재충전하고 자아를 회복하며, 삶의 방향을 재정립하는 적극적 과정으로 기능한다. 내가 생각하는 휴식은 일상에 의해 소모된 내면을 충전하는 시간이자, 외부 환경과 잠시 거리를 두며 자신과 온전히 마주하는 소중한 순간이다.

특히, 소파라는 일상적 오브제는 휴식의 의미를 시각적으로 구체화하는 중요한 매개체가 된다. 나에게 소파는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자 동시에 고독과 외로움을 상징하는 대상이다. 어린 시절 부모님이 집에 오시기 전까지 바쁜 일상 속 피로에서 벗어나 소파에 기대 쉬던 기억은, 소파가 고독과 편안함이 라는 이중적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작품 속에서 단색 색면의 배경은 고독과 외로움을 상징하며, 화면 중앙에 위치한 소파는 휴식의 공간으로서 표현되었다.

7) 위의 책, p.21.



[도판 1] Edward Hopper, <Nighthawks>, 84.1x152.4cm, oil on canvas, 1942

[도판 1]은 에드워드 호퍼 (Edward Hopper, 1882-1967)의 작품으로 작품 속에서 나타나는 현실적이면서도 고립된 공간 구성은 나의 작품 속 소파 이미지가 홀로 고립되어 표현되는 방식과 연결성을 지닌다. 에드워드 호퍼의 작품은 20세기 미국 사회의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를 겪던 사회의 변화에서 현대인의 심리적 고립과 내면적 공간을 사실적이며 상징적인 방식으로 표현했다. 에드워드 호퍼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고독한 인물과 그 주변의 여백을 통해 도시인의 외로움을 강조한 것과 유사하게, 나의 작품에서도 텅 빈 배경과 고립된 소파를 통해 나의 심리적 고독과 휴식의 이중성을 반영하고 있다.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소파는 대부분 거실에 배치하는 경우가 많다. 거실이 주는 공간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적인 공간보다는 공유하는 공간, 타인과 만나는 공적인 느낌이 강하다. 나는 사적인 공간 내의 공적인 특성을 가질 수 있는 거실이라는 공간을 타인들과 만나는 공적인 장소의 출발점으로 보았다.

거실을 공유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이슈와 현상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 개인이 경험할 수 있는 고독과 외로움을 사회로 확대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했다. 또한, 개인이 사적인 공간을 벗어날 때 마주하게 되는 여러 상황과 그 과정에서 경험하는 심리적 상태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나는 순간적인 휴식에서 느끼는 안식과 편안함을 제공하는 소파의 이미지와 관련 공간의 특성을 통해 현대인이 자신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돌아보고 일상 속에서 휴식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와 활동 방식을 갖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만큼 소파 위에서 경험하는 짧지만 밀도 있는 휴식은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일상의 틈새 속에서 자아를 회복하고 삶의 균형을 되찾는 중요한 순간이다.

심리학자 아브라함 매슬로우(Abraham Maslow, 1908~1970)는 “인간의 기본 욕구를 5단계로 구분하면서 가장 기초적 욕구로서 신체적 안정과 휴식을 강조하였다. 매슬로우에 따르면, 휴식은 생리적 욕구(Physiological Needs)에 속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필수적인 요소로, 충분한 휴식 없이는 상위 욕구(안전, 소속감, 자아실현 등)로 나아갈 수 없다고 말했다.”⁸⁾ 이 이론은 휴식을 단순한 소극적 쉼이 아닌, 인간의 성장과 자기실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설명한다. 나의 작품은 이러한 이론적 토대를 바탕으로 휴식을 단순히 신체를 쉬게 하는 행위를 넘어 정신적 성장과 신체적 치유로 이어지는 적극적인 과정으로 시각화하고자 하였다.

8)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070231&cid=41991&categoryId=41991>

2. 작품 조형 연구

1) 소파 이미지를 통한 휴식 공간 연출

오브제(object)는 현대 미술에서 개인의 경험, 심리, 상징을 투영하는 수단으로 널리 사용된다. 특히 소파는 휴식, 안락, 쉼, 개인의 일상성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오브제로 인식된다. 나는 일상 오브제가 단순한 가구를 넘어 개인의 기억과 감정이 투영된 공간의 상징으로 치환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나의 작품에서의 소파는 단순한 사물 이상의 존재로, 편안함의 상징이자, 개인의 사적인 공간, 외로움이 느껴지는 심리적 공간으로 작용하는 상징적 오브제이다.

나는 소파를 주로 캔버스 화면의 중앙에 배치하고 매우 정적인 공간 속에 홀로 놓여있는 상황을 연출했다. 소파가 위치한 곳을 제외한 나머지 캔버스 공간은 대부분 색면으로 단순하게 처리하여 구체적인 소파 이미지와 대조를 이룬다. 소파 시리즈로 진행한 초기 작품의 경우 최근 진행하고 있는 작업들과 비교해보면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 우선 배경이 되는 공간을 파스텔 색조가 아닌 원색으로 표현하고, 소파와 텔레비전 등과 같은 휴식 공간의 상징적 요소들을 화면에 배치해 사진 이미지를 사실적으로 묘사하여 ‘휴식의 공간’을 연출하였다. 평 붓으로 붓 자국을 최소화하면서 만든 원색 배경과 명암법과 정면성을 강조해 화면에 뚜렷하게 표현된 소파 이미지는 공간 속에 홀로 남아 있는 나의 모습과도 닮아 있다고 느꼈다.

작업을 진행하면서 배경과 소파 이미지의 상관성에 대해 보다 집중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배경과 중심적 이미지의 구별보다는 한 캔버스 화면 안에서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흡수된 느낌을 강조하게 되었다. 배경의 색과 소파 이미지의 선은 유사 계열의 색으로 연결시키고 구별되는 요소가 아닌 동화된

성격을 가진 요소로 바꾸고자 하였다.

화면 속 비어있는 공간은 심리적 여백으로 작용하여 관람자가 작품 속으로 더욱 깊이 몰입하도록 유도하고자 했다. 특히, 화면 중앙에 위치시킨 소파와 주변의 여백은 공간적 대비를 이루며 휴식 속에서도 어딘가 외롭지만 고요한 존재감을 형성한다.

이를 위해서는 내가 구상하는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이 필요했다. 먼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소파의 이미지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했다. 어린 시절 집에서 사용했던 소파뿐만 아니라, 할머니 댁에 있던 가죽 소파 등 과거의 경험 속에서 안정감을 주었던 다양한 소파의 형태와 질감을 떠올렸다. 이를 바탕으로 여러 자료를 조사, 분석하며 가장 적합한 이미지를 선별하였다.



[도판 2] 본인작업 에스키스, 21x29.7cm,
digital print, 2023



[도판 3] 본인작업 에스키스, 21x29.7cm,
digital print, 2024

선택한 이미지는 단순한 참고자료를 넘어, 내가 구상하는 휴식의 공간을 형상화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였다. 이후 편집 과정에서 색감과 명도를 조정하여 보다 따뜻하고 아늑한 분위기를 강조하였으며, 공간 속에서의 배치와 구도를 신중히 조율함으로써 심리적 안정감과 외로움의 이중성을 극대화하고자 했다.

또한,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며 여백을 활용하여 시각적 균형을 맞추는 데 중점을 두었다. 소파 외에도 휴식과 관련된 이미지들을 선택적으로 사용하여 화면에 담고자 하였다. 예를 들어 텔레비전, 쿠션 등 거실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이미지 중에서 내가 작품 속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휴식과 관련된 이미지를 화면에 소파 이미지와 함께 담았다. 이후에는 소파 이미지만을 화면에 담아 보다 의미를 강조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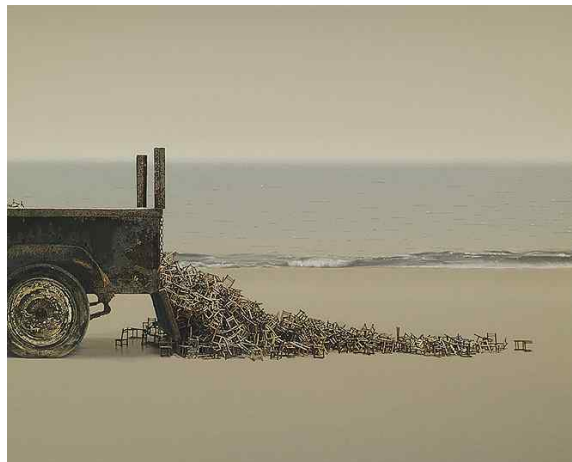


[도판 4] René Magritte, Personal Values, 77.5x100cm, oil on canvas, 1952

[도판 6]은 르네 마그리트 (René Magritte, 1898-1967)의 작품으로, 그는 일상적인 사물과 공간을 예상치 못한 맥락에 배치하여 관람자가 무의식과 현실 사

이에서 심리적 긴장과 의문을 느끼도록 했다. 우리에게 친숙한 사람이나 사물은 안전하고 편안함을 주지만, 마그리트는 ‘낮설게 하기’와 ‘데페이즈망’⁹⁾ 기법을 활용해 익숙한 대상과 공간을 낮설고 초현실적인 장면으로 변형하여 감상자가 무의식을 탐색하도록 유도한다.

나의 작품 또한 평범한 소파를 고립된 채로 배치하고, 주변의 추상적이고 비현실적인 색면과 결합시켜 고독한 분위기를 연출함으로써 내면적 휴식에 대한 욕구와 외로움을 표현하였다. 일상에서 쉽게 접하는 대상을 낯선 환경에 놓아둠으로써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고자 한다는 점에서 마그리트와 나의 작품 사이의 연결성을 찾을 수 있었다.



[도판 5] 지석철, Time, Memory, and existence, 72.6x90.9cm, oil on canvas, 2016

9) 데페이즈망(dépaysement): ‘추방하는 것’이란 뜻. 초현실주의에서 쓰이는 말로, 일상적인 관계에서 사물을 추방하여 이상한 관계에 두는 것을 뜻함. 있어서는 안 될 곳에 물건이 있는 표현을 의미한다. 그 결과 합리적인 의식을 초월한 세계가 전개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데페이즈망 [dépaysement] (미술대사전(용어편), 1998, 한국사전연구사 편집부)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59669&cid=42635&categoryId=42635>

[도판 5]는 지석철의 작품으로, 오랜 시간 동안 의자라는 오브제를 매개로 존재, 기억, 부재의 개념을 탐구해 온 작가이다. 그의 작품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미니 의자’는 개인의 흔적을 상징하면서 동시에 그 부재로 인한 상실감과 고독을 불러일으킨다. 지석철의 오브제는 일상의 사소한 사물이지만, 그것은 단순한 기능을 넘어서 심리적·존재론적 의미를 담고 있다.

이는 나의 작업에서 ‘소파’가 지니는 역할과 깊은 유사점을 가진다. 소파는 나에게 있어 단순히 앉아서 쉬는 도구가 아니라, 유년 시절의 기억, 외로움, 그리고 휴식을 매개하는 상징적 공간이다. 지석철이 부재를 통한 존재의 역설을 말하듯, 나 또한 화면 속에서 소파를 단독으로 배치하거나 배경과 융합시켜 점점 존재가 사라지거나 공간에 스며드는 형식을 통해 자아의 해체와 확장, 즉 존재의 흔적과 그 잔여감을 표현하고자 했다.

특히 지석철이 언급한 “의자가 아닌 또 다른 어떤 것이 되어도 좋을 존재의 표상”이라는 그의 표현은 나의 작업에서 소파가 상징하는 감정적·심리적 맥락과도 밀접히 연결된다. 소파는 나에게 ‘휴식의 물리적 장소’ 이상으로, 현대인의 내면을 반영하는 하나의 ‘심리적 거울’이자 자아의 존재감이 드러나는 ‘정서적 무대’이다. 지석철이 일상적 오브제를 통해 인간 실존의 무게와 의미를 재조명했다면, 나의 작업은 그 오브제를 통해 휴식의 본질, 내면 회복의 순간, 그리고 어린 시절 경험했던 심리적 배경의 공간을 시각화한 시도라 할 수 있다.¹⁰⁾

이처럼 지석철의 의자가 시대의 아픔과 부재의 기억을 환기시키는 상징적 도구라면, 나의 소파는 고단한 삶 속에서의 휴식과 치유의 가능성을 담은 상징으로 기능하며, 두 오브제는 모두 “존재를 대체하는 감정의 흔적”이라는 측면에서 유사성을 지닌다.

10) <아트&아트인> ‘의자 작가’ 지석철
<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126932>

(2) 휴식과 색채와의 관계성

“환경색채는 인간을 둘러싼 모든 색채를 지칭한다. 환경색채는 환경에 대한 인간의 관점과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즉 환경색채는 환경과 색채 사이에 인간이 중심이 되어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문화적인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 오늘날의 환경색채는 주거의 개념에서 출발하여, 우리가 머무는 거리와 장소 그리고 모든 도시 환경의 문제로 그 개념이 확대되고 있다. 인간에게 가장 먼저 주어진 환경은 자연환경이다. 건축이나 마을, 도시의 색이 인간에게 편안하고 자연스러움을 줄 때는 그 지역에 맞는 색이 그대로 나타날 때이다. 자연의 색채는 시간과 장소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되므로 자연으로부터의 색채는 무한하다고 볼 수 있다. 자연의 색이 가지는 다양성을 발견한 인간은 그러한 감각을 색채 계획에 응용하고 새로운 인공 환경에 적용하여 재구성하고 있다.” 11)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색채와 인간은 많은 관련이 있다. 자연환경에서 시작한 환경색채는 도시 환경으로 확대되고 활용되는 것처럼, 나의 작품에서도 자연의 색채가 가지는 다양성을 응용하고 재구성하고 있다. 특히 나는 자연의 색채 중 특정한 색을 선택하고 활용하고 있다. 색채가 주는 심리적 영향을 고려하여, 나의 작품 속 휴식의 공간은 포근하고 따듯한 분위기를 표현하고자 했다. 이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햇빛과 자연이 생각나는 난색 계열의 노란색과 중성 계열인 초록, 연두색 계열이 제일 먼저 떠올랐다.

화면 중앙에 위치시킨 소파와 주변의 여백은 공간적 대비를 이루며 고요한 존재감을 형성한다. 이는 안정감과 휴식, 그리고 차분한 분위기를 전달하기 위해 색채의 심리적 효과와 맞물려 관람자에게 휴식과 치유의 경험을 제공하고

11) 김성현 <색채심리학>, p.66.

자 했다.

노란색은 흰색 중에서 빛을 가장 많이 반사하여 밝고 생동감과 명랑한 느낌을 주어 따듯한 아침 햇살, 봄의 이미지, 어린아이의 이미지를 연상시킨다. 또한, 태양을 상징하는 색으로 자기표현과 논리력, 지적 능력을 촉진하는 활발한 특성을 가지며 희망과 영감을 불러일으킨다.¹²⁾ 녹색 계열의 색은 자연을 상징하며 새싹에서 울창한 숲까지 모두 초록색이다. 녹색은 난색이나 한색이 아닌 중성색의 이미지로 안정감과 침착한 느낌을 준다. 또한, 녹색은 덜 익은 과일의 색으로 싱그러움과 젊음을 상징하기도 한다. 서양 문화에서는 녹색을 자연 또는 순수한 동심을 상징하며, 피터팬의 옷처럼 영원한 어린이의 이미지와 미성숙함을 나타내기도 한다.¹³⁾ 비슷한 계열의 연두색은 휴식을 연상시켜 편안함을 느끼게 하고 신선함을 갖게 한다. 봄이나 초여름 자연을 상징하며, 새싹, 어린이, 자연 등의 이미지도 갖고 있다. 심리적으로 연두는 스트레스를 해소시켜 주며, 정신의 평화를 갖게 한다.¹⁴⁾

이와 같이 우리는 항상 색채 속에 둘러싸여 있지만 그 의미를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색채가 지니는 힘은 인간의 삶 전반에 큰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시각 자극을 넘어선다고 생각한다.

인간은 환경에서 80%의 정보를 시각을 통해 수집하며, 색은 환경에 속해 있다. 색은 자연적이고 인위적인, 또는 구조적인 환경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정보와 통신의 수단이 된다. 환경에서 색을 느낀다는 것은 항상 시각적, 관념적, 공감각적, 상징적, 감정적, 생리학적 효과를 수반한다. 색을 ‘본다’ 라는 것은 단순히 이러한 자극을 눈으로 인식하고 대뇌의 감각세포가 생물학적으로 자극을 받는 것보다 더 심오하고 복잡한 과정이다. 외부 세계에서 받은 색 자극은 심리적인 반응과 관련되어 있다. 괴테는 “내재하는 것이 없으면 외재하

12) 위의 책 p.73.

13) 위의 책 pp.73-74.

14) 위의 책 p.39.

는 것도 없다. 왜냐면 내부가 곧 외부이기 때문이다” 라고 언급한 바 있다.¹⁵⁾ 색채는 단순한 시각적 요소의 조합을 넘어 한 인간의 내재된 마음을 표현할 수 있고, 그 색채를 통해 타인을 그들의 내면 공간으로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한다.

색채의 기능은 인간의 필요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색채의 기능 중 대표적인 예는 생리-심리학적 기능, 치료 기능 등이 있다. 생리-심리학적 기능에서 인간은 외적 자극에 대한 생체 에너지 소모가 적을수록 쾌적함을 느끼므로, 정보 과다 상태의 색채 환경을 조절하여 자극 요소를 최소화하고 시각적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사람들의 기분, 즉 심리적 상태는 밝고 조화로운 환경에서 개선되며, 이는 혈압, 맥박, 근육 긴장도 등 기질의 개선으로 이어진다. 적절한 색채 사용은 시선을 편안하게 하고, 정서적으로 즐겁게 하여 작업 능력을 향상시킨다. 그러나 변화가 없는 환경에서는 감각 박탈 상태가 발생하므로 심리적 및 생리적 색채 반응을 활발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변화와 다양성이 필요하다.¹⁶⁾

치료 기능에서의 색채는 인체에서 생리적 반응과 정신적 반응을 일으키므로 이러한 색채의 영향은 육체적 정신적 치료 과정에서 효율적인 매체로 이용될 수 있다.¹⁷⁾ 감정 균형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초록색은 우울증과 같은 심리적 질환 치료 약물에 널리 사용된다. 예시로, 항우울제에 초록색이 주로 사용되는 이유는 약물의 효능 외에도 색 자체가 환자의 심리적 안정과 감정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녹색은 식물의 상징이며 자연의 기본적인 색이고, 봄을 상징하는 색이다.¹⁸⁾ 녹색은 노랑의 쾌활함과

15) 위의 책 pp.121-122.

16) 이주희, <현대 공간의 색채 언어 표현 특성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디자인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2005, p.11-12.

17) 위의 논문, p.12.

18) 김선현, <색채심리학>, p.184.

파랑의 숭고함이 섞인 색으로 조용하고 신선하며 자연적인 이미지를 연상시킨다. 따라서 눈이 정확하게 망막에서 녹색을 감지할 때 사람들 마음을 진정시키고 평화로운 느낌을 받는다.¹⁹⁾

노란색은 에너지 덩어리인 태양의 색깔이며 희망, 화사함, 쾌활함, 개방성, 긍정성, 지적 명료성 등의 긍정적인 심리적, 정서적 특징을 지닌다. 그래서 온 신경을 활성화하고 특히 근육에 사용되는 에너지 생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란색은 우리 몸에 활력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움직임에 도움을 주는 효과가 있다. 밝은 노랑보다 따듯한 느낌의 진노랑은 억제되고 경직된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리듬 체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이완과 명랑함을 증진시킨다.²⁰⁾

이처럼 나의 작품에서 등장하는 색채는 단순한 시각적 요소를 넘어 인간의 심리적, 생리적 상태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나의 작품에 주요하게 사용되는 노란색은 활력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부여하며, 초록색은 심리적 안정과 편안함의 의미를 연상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나는 이러한 색채의 특성을 활용하여, 작품 속 휴식의 공간이 단순한 물리적 쉼터를 넘어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자신의 가장 편안한 공간을 떠올려 심리적 치유와 안정감을 선사하는 매개체로 표현하고자 했다.

19) 위의 책, p.185.

20) 위의 책, p.190.

3) 단색 색면이 주는 의미

나는 끝이 없는 무한한 공간 속에서 불필요한 시선을 최소화하고 오직 소파에만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을 연출하고자 한다. 그 출발점은 홀로 존재하는 소파 이미지를 단순한 색면으로 감싸는 과정에서 비롯된다. 작품마다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최근 작업에서 내가 주로 사용하는 색상은 채도가 낮고 명도가 높은 파스텔 톤의 색상이다. 부드러움을 자아내는 파스텔 톤은 관람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시각적인 편안함과 정신적 안정감을 끌어내기 위해 선별된 색상이다. 그중에서 내가 주로 사용하는 녹색 또는 노랑 계열은 초봄에 새싹들이 가지 위에서 피어오를 때 볼 수 있는 연하고 밝은 연두색을 연상케 하기도 하고 유채밭의 노란빛 향연을 보는 것 같기도 하다.

다양한 색상들이 인접하여 만드는 공간의 특성보다는 하나의 색으로 뒤덮인 공간을 통해 무한하게 확장된 공간감을 제공하고자 한다. 실내의 제한적 공간 속에서 경험하기 힘든 무한하게 펼쳐진 실외 공간감을 작품을 통해 연출하고 그 과정에서 심리적 변화를 도출하고자 한다. 어떻게 보면 캔버스라는 2차원적 평면의 유한한 공간 속에 무한해 보이는 듯한 착시를 만들기도 하며 고요한 분위기에서 고독한 느낌을 표현하고자 했다. 그러나 그 무한한 공간 안에서의 순간적인 휴식은 아이러니하게도 진정한 해방이 아닌 일시적인 만족에 불과하다.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갈망은 커질수록,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은 더욱 선명하게 다가오며, 관람자는 무한한 공간을 마주한 채 오히려 더 강한 제한성과 고립감을 체감하게 된다. 이처럼 작품은 휴식을 표현한 공간에서조차 해방과 억압이 공존하는 나의 내면의 모순을 드러내며, 불완전한 현실 속에서 마주하게 되는 심리적 상황을 드러내기도 한다.

이러한 심리적 경험은 시각적 표현 방식에서도 드러난다. 나는 소파 이미지를 제외한 나머지 캔버스 공간은 대부분 색면으로 단순하게 처리하여 구체적인 소파 이미지와는 상대적으로 대조를 이루게 한다. 색면으로 처리하는 공간은 강렬한 원색보다는 흰색을 혼합하여 연한 파스텔 톤의 연두, 노랑 등 난색 계열의 색면을 위주로 칠한다. 고요하고 평온하며 온화한 공간 속에 소파 이미지를 화면 중앙 주변에 배치함으로써, 노이즈가 최소화된 단순하면서도 깊이 있는 ‘힐링의 공간’을 창출한다. 추상적 색면은 물감을 두텁게 만들어 한 두 번에 칠하지 않고 동일한 색을 반복적으로 칠하고 건조하는 과정을 거쳐 레이어를 만들면서 단순하지만, 두께감이 있고 깊이감이 있는 색면을 만들곤 한다. 내가 실제로 거주하는 아파트 내 거실 공간 속 소파를 제외한 나머지 공간 속 이미지들은 단순한 색면으로 뒤덮는 과정의 상태를 상상하며 그린 것이 그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도판 6] Wolfgang Laib, <Pollen from Hazelnut>, 5 jars of hazelnut pollen dimensions variable, 2002

볼프강 라이프(Wolfgang Laib, 1950~)는 자연 소재인 꽃가루, 밀랍, 우유, 쌀 등을 사용하여 작품을 구성하며, 인간과 자연의 깊은 교감, 존재의 본질, 치유의 가능성을 탐구한다. 그의 대표적인 작업 중 하나는 바닥에 꽃가루를 단색의 면으로 펼치는 설치작품으로, 이는 자연의 순수성과 생명의 에너지를 상징하면서도 관람자에게 심리적 정화와 평온을 유도한다. 꽃가루라는 미세한 자연 입자가 만들어내는 부드럽고 연속적인 단색 면은 동양철학, 특히 불교나 도교의 정신과 맞닿아 있다. 물질을 통해 무형(無形)을 지향하고, 관념을 넘어선 감각적 체험을 유도하는 것이다.

나의 작품에서 캔버스를 뒤덮는 연한 파스텔 색조 단색 면 역시, 제한된 실내 공간을 무한한 자연의 확장처럼 느끼게 하려는 시도이며, 관람자가 심리적 안정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 라이프의 작업과 닮아 있다. 특히, 볼프강 라이프가 물질적 두께감을 오직 색과 감각만으로 공간 전체를 변화시키듯, 나 또한 파스텔 색조 색면을 반복적으로 쌓아 심리적 밀도와 시간성을 부여함으로써 화면의 깊이와 명상적인 느낌을 불러일으키고자 한다.

볼프강 라이프는 자연과 인간, 존재와 무의 경계를 허물며 관람자 내면의 평화를 이끌어낸다. 이처럼 나의 작품 또한 물리적 사물(소파)을 최소한으로 배치하고, 부드러운 색채의 단색 면으로 주변을 감싸며 관람자가 자신의 내면과 조용히 마주하는 휴식의 순간을 경험하도록 의도했다. 결국, 라이프의 작업처럼 나의 작품도 단색의 색면과 최소한의 오브제를 통해 단순한 시각적 미감을 느끼게끔 하는 ‘휴식의 공간’을 만들고자 했다.

3. 작품 분석



[작품 1] <아무것도 아니야>, 97x130.0cm, oil on canvas, 2023

[작품 1]은 휴식 시리즈의 첫 번째 작품으로, 내가 느끼는 ‘휴식의 공간’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첫 시도이다. 이 작품은 일상 속에서 잠시나마 쉴 수 있는 공간을 떠올리며 작업했으며, 유년 시절 학원에 가기 전 잠시 숨을 돌리던 소파를 중심 소재로 삼았다.

배경은 자연을 상징하는 노란색과 연두색의 따뜻한 색감을 활용하여, 삭막한 도시적 분위기에서 벗어나 포근하고 안락한 느낌을 강조했다. 특히, 소파의 오른쪽 부분에 빛이 들어오는 듯한 표현을 더해 단순한 사물에 생명력을 부여하

고자 한다. 이 빛은 마치 심장처럼 생명을 상징하는 요소로, 현실 속에서 스스로 힐링할 수 있는 공간과 순간을 찾으려는 내면의 욕망을 반영하고자 했다. [작품 1]은 단순히 일상의 한 장면을 그리는 것을 넘어, 관람자에게 자신만의 ‘휴식의 공간’을 떠올리게 하고 휴식과 재충전에 대한 감각적이고 정서적인 경험을 주고자 했다.



[작품 2] <Rest>, 53x33.4cm, oil on canvas, 2024

[작품 2]의 화면 속 소파 이미지는 배경 화면에 비해 더욱 입체적이다. [작품 1]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이미지가 있고 표현이 사실적이다. 나는 이 과정에서 사진 이미지의 재현을 통해 구체적인 소파 이미지를 화면 위에 구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치 단순한 배경 위의 명함 사진처럼 나의 자화상의 상징적 이미지로써 표현하고자 하였다.

소파라는 일상적 사물 위에 생명감을 불어넣고자 하였으며 소파의 한 부분에 빛을 발생시키는 혹은 마치 사람의 심장과도 같이 생명을 상징하는 표현을 담고자 하였다. 빛이자 생명과도 같은 이 표현은 나에게 주어진 현실에서 잠시나마 힐링의 상황을 스스로 만들고 찾고자 하는 한 줄기의 욕망과도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시각적 요소의 분석과 재구성을 통해, 단순한 가구의 배치가 아닌 심리적으로 안락함을 제공할 수 있는 휴식의 공간을 구현하고자 하였다.



[작품 3] <Rest 1>, 60.6x72.7cm,
oil on canvas, 2023



[작품 4] <Rest 2>, 60.6x72.7cm,
oil on canvas, 2023

[작품 3]과 [작품 4]는 휴식 시리즈의 연장선으로, 단순히 소파라는 오브제를 기반으로 하여 유년 시절 집 안에서 쉽게 볼 수 있었던 가구나 물건들을 함께 배치한 작품이다. 이러한 구성을 통해 나는 개인적인 기억과 감성을 시각적으로 재구성하면서도 보편적인 관람자가 ‘휴식의 공간’을 떠올리며 공감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했다. 감각의 물건들은 단순한 장식적 요소를 넘어, 과거의 흔적과 정서를 의미하며 이는 휴식이라는 주제가 단순히 물리적 공간에 머무르지 않고, 감각적이고 심리적인 체험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탐구하는 시도였다.

작품의 배경은 여전히 단색의 넓은 공간으로 설정되어 현실적이면서도 비현실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려 했다. 이러한 배경 속에 배치된 가구들은 그림자 무처리를 통해 마치 공중에 떠 있는 듯한 느낌과 꿈이나 기억 속 한 장면을 포착한 듯한 인상을 의도했다. 공간의 단순화와 여백의 강조는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집’이라는 개념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며,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를 흐리게 표현하고자 했다. 특히, [작품 3]에서는 초록색 소파와 작은 TV가 배치되어 있다. 이 TV에서 빛이 새어 나오는 표현은 단순한 가전 제품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고자 했다. TV는 정보를 제공하는 기계 역할뿐만 아니라 유년 시절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던 매개체였으며, 때로는 외부 세계와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기도 한다. TV에서 흘러나오는 빛은 과거의 따뜻한 기억을 떠올리게 하며 동시에 일상의 현실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나의 내면적 욕구를 반영하고자 했다.

이처럼 [작품 3]과 [작품 4]는 단순한 공간 묘사를 넘어 기억과 감정, 현실과 환상의 경계를 탐구하며 관람자에게 초현실적인 공간과 익숙한 오브제의 조합은 휴식이란 단순한 물리적 안락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각자의 추억과 가상을 떠올릴 수 있는 심리적 여지를 제공하고자 했다. 그리고 휴식이라는 개념을 개인적이면서도 추상적인 방식으로 해석하며, 익숙한 오브제들이 배치된 초현실적인 공간을 통해 ‘이상적인 휴식의 공간’을 탐색하고자 했다.



[작품 5] <Rest 3>, 60.6x72.7cm, oil on canvas, 2024

[작품 5]는 휴식 시리즈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도, 이전 작품들과 뚜렷한 차이를 주었다. [작품 3]과 [작품 4]에서는 소파뿐만 아니라 유년 시절의 기억과 연결된 쿠션이나 텔레비전 같은 오브제들이 함께 배치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작품에서는 그러한 오브제들을 점차 희미하게 표현하거나 거의 배제하여 소파를 중심으로 한 화면으로 구성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공간의 축소가 아니라, 내가 탐구하는 ‘휴식’이라는 개념이 점차 변해가는 과정을 시각적으로 담고자 한 것이다. 이전 작품에서

휴식은 특정한 사물과 함께하는 공간적인 개념이었다면, 이번 작품에서는 소파와 배경의 경계가 점차 희미해지며, 결국 존재의 소멸과 연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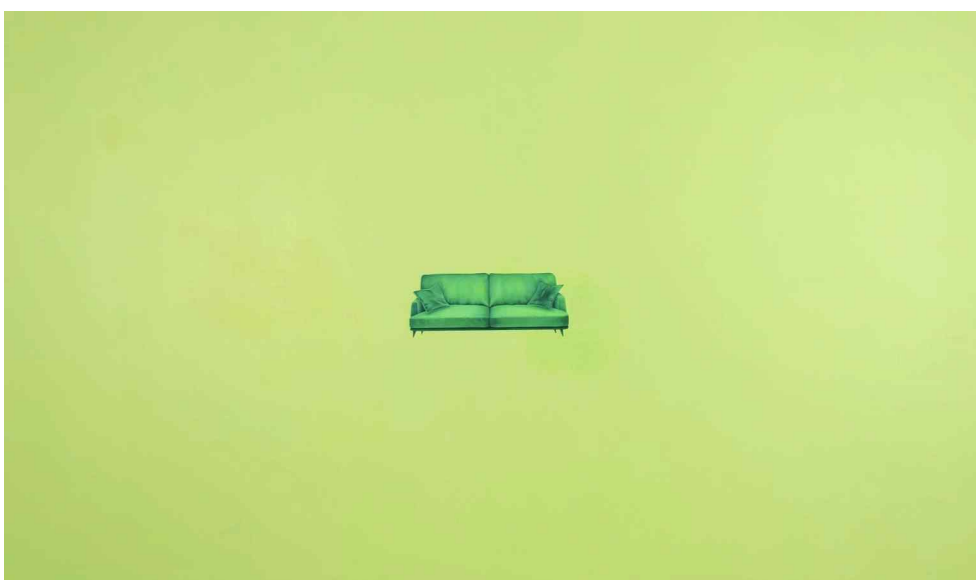
특히 소파 아래에 희미하게 남은 쿠션의 흔적은 부재와 잔상을 암시하고자 했다. 이는 기억 속에서 점점 사라지는 공간의 모습이기도 하며, 동시에 나 자신이 그 공간에서 흡수되어 사라지는 듯한 느낌을 반영한 것이다. 이는 단순한 휴식의 장소를 넘어 나의 존재 자체가 점차 공간과 융화되는 과정 즉, 정체성과 감각이 공간 속에 녹아드는 심리적 상태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려는 과정을 담아냈다.

작품에서 사용된 단색 배경과 소파의 배치는 일종의 미니멀리즘적 요소를 강조하여 비현실적이고 몽환적인 분위기를 극대화하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구성은 현실과 비현실, 존재와 부재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어 관객이 작품을 감상하면서 자신의 기억과 감정을 투영하는 것을 의도했다.

나는 ‘휴식의 공간’이 단순히 안식처의 역할에 그치지 않고, 시간이 흐름 속에서 기억이 흐려지고 사라지는 과정을 함축하고 있음을 보여주하고자 한다. 결국 [작품 5]는 휴식을 위한 공간이 나를 감싸며 편안함을 제공하는 동시에 나 자신을 서서히 지워나가는 아이러니한 감각을 표현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작품 6] <Rest 4>, 72.7x116.8cm, oil on canvas, 2024



[작품 7] <Rest 5>, 72.7x116.8cm, oil on canvas,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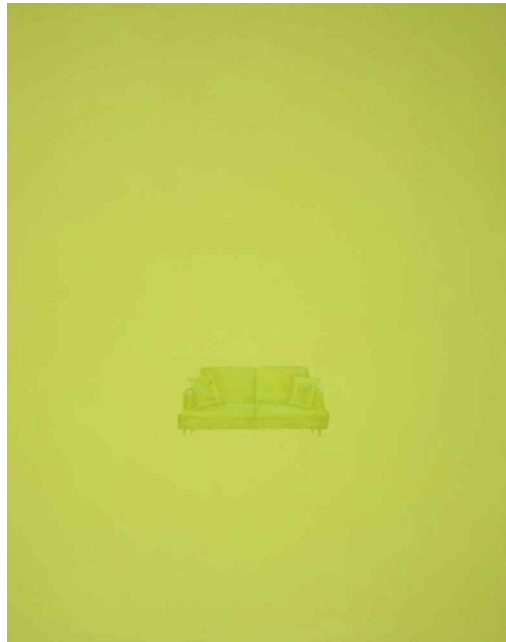
[작품 6]과 [작품 7]은 공간의 최소화와 색채의 부드러운 확장이라는 연구 과정을 통해 휴식이라는 주제가 ‘장소’에서 ‘상태’로 전환되기 직전의 지점을 보여주고자 했다. 이 작품들에서는 소파 위에 무심하게 놓인 쿠션이 등장하는데, 이는 인간의 흔적을 암시하면서도 동시에 그 공간에 사람이 부재함을 더욱 극명하게 드러내고자 했다. 마치 그곳에서 누군가가 잠시 머물다 떠난 듯한 인상을 주고자 했으며, 이를 통해 휴식이란 것이 영원한 상태가 아니라 순간적이며 덧없는 것임을 상징하고자 했다.

[작품 6]의 배경색은 부드러운 옐로우 톤을 유지하되, 이전 작품들보다 더욱 열고 몽환적인 분위기를 표현하고자 했다. 부드럽게 퍼져나가는 옐로우 톤은 존재의 흔적과 감정의 여운이 공간 전체에 서서히 확산되는 심리적 흐름을 시각적으로 구현하며,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고자 했다. 이와 같은 색채의 흐름은 단순히 물리적 장소로서의 공간을 넘어, 관람자 각자의 기억 속에서 떠오르는 개인적인 장소로 받아들일 여지를 주고자 했다. 이는 작품이 특정한 의미를 강요하지 않고, 관람자에게 내면적 해석과 감정적 반응을 이끌어내는 열린 장을 제공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특히 색감과 구성에서 오는 고요한 분위기는 단순히 ‘휴식의 공간’을 묘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감정적이며 사색적인 요소를 깊이 담고 있음을 표현하고자 했다. 나는 공간의 요소를 과감히 최소화함으로써, 휴식이라는 경험이 외부적 조건에 의해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내면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작품 속 소파가 놓인 공간은 더는 특정한 장소로서 존재하지 않고 심리적 상태이거나 기억 속에 희미하게 남아 있는 잔상처럼 보이게 했다.

결국, 여백의 활용과 단순화된 구성은 내가 이해하는 ‘휴식’의 개념이 단순한 물리적 쉼을 넘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서서히 희미해지는 경험과 감정의 흐름과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주고자 했다. 이는 관람자에게 작품을 단순

한 시각적 대상으로 보는 것을 넘어, 자신의 내면과 경험을 투영할 수 있는 심리적 공간으로 경험하게 한다.



[작품 8] <Rest 6>, 60.6x72.7cm, oil on canvas, 2024



[작품 9] <Rest 7>, 53x65.1cm, oil on canvas, 2024

[작품 8]과 [작품 9]은 최근 작업 중에서도 특히 내면적이고 추상적인 면모를 강조한 소파 시리즈 작품이다. 전체 흐름 중에서도 특히 내면적이고 추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자 했다. 이 두 작품에서는 소파 이미지와 배경 사이의 경계가 전에 비해 훨씬 더 모호해졌다. 이전 작품들에서는 소파가 뚜렷한 형태와 선명한 색감으로 배경과 구분되면서 강한 존재감을 드러냈다. 그러나 이번 작업에서는 배경으로 사용된 파스텔 톤의 색면 속에 소파 이미지를 부드럽게 스며들게 하여, 소파의 3차원적 입체감을 의도적으로 약화시키고자 했다. 이를 통해 소파는 더 이상 단순히 독립된 오브제가 아닌, 배경과 하나로 융합되어 공간 속에서 은은하게 존재감을 드러내는 형태로 표현하고자 했다.

이 시도는 소파 자체를 없애려는 의도가 아니다. 오히려 소파 이미지를 배경과 구분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하나로 융합시켜, 단순히 독립된 오브제로 머무르지 않고 공간 전체와 하나가 되는 효과를 만들고자 했다. 이처럼 소파와 배경의 경계가 흐려지는 표현은, 존재가 특정한 형태나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공간 전체로 스며들며 확장되는 느낌을 상징한 것이다. 이는 관람자에게 형태의 해체를 넘어, 존재와 공간의 조화로운 통합을 체험하도록 유도하고자 했다.

이러한 작업 과정은 동양철학에서 말하는 ‘무(無)’의 개념과 깊게 맞닿아 있다. ‘무’는 단순히 비어있거나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 형태나 경계에 얽매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본질적으로 존재하는 순수한 상태를 의미한다.²¹⁾ 나의 작품에서도 이 ‘무’의 개념을 반영하여 외부 세계의 혼란을 내면의 평화로운 상태와 순수한 존재감을 표현하고자 했다.

[작품 8]과 [작품 9]는 단순히 휴식을 형상화하는 이미지를 넘어, 존재에 대한 깊은 사유와 공간-존재의 통합적 순간을 탐구하는 실험적 시도라 할 수 있다. 작품 속 흐릿해진 경계와 부드러운 색채는 관람자를 외부 자극에서 벗어나 내면의 세계로 이끄는 매개체가 되며, 이를 통해 관람자는 조용히 사색하며 존

21) 동양철학의 ‘무’

[https://ko.wikipedia.org/wiki/%EB%AC%B4_\(%EC%B2%A0%ED%95%99\)](https://ko.wikipedia.org/wiki/%EB%AC%B4_(%EC%B2%A0%ED%95%99))

재의 본질과 자신을 둘러싼 공간적 관계에 대해 새롭게 인식될 수 있다. 결국 최근 작업이 형태의 해체와 사라짐을 넘어, 존재의 확장을 탐구하고 내면세계의 심연을 깊이 들여다보는 더 넓은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했다.

Ⅲ. 결 론

이 논문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제작한 ‘휴식’을 주제로 한 연작에 대해 분석한 글이다. 내가 생각하는 휴식의 역할과 의미, 그리고 그 중요성을 확장하여 이 논문과 작품 활동을 통해 나는 ‘휴식’이라는 개념이 현대인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 다시금 확인하게 되었다.

휴식은 단순히 신체적 피로를 해소하는 차원을 넘어, 내면의 자아를 회복하고 정신적 안정과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바쁜 일상 속에서 자신과 마주할 시간이 부족한 현대인들에게 잠깐의 휴식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휴식을 취하는데 있어 죄책감이나 타인과의 비교, 부담을 느끼며 인색한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한다. 나 역시 이러한 경험을 공유하며, 예술이라는 행위를 통해 나만의 휴식 방식을 찾고자 했다.

이에 나는 ‘소파’라는 일상적인 오브제를 중심으로 작품을 구성하였고, 색면의 활용을 통해 그 안에 담긴 심리적 의미를 탐구하였다. 소파는 단순한 가구를 넘어서 나의 기억과 정서를 담고 있는 상징적인 공간이며, 화면 중앙에 배치해 배경에 스며드는 방식으로 시각화하였다.

내가 표현하고자 했던 것은 현실과 비현실, 존재와 부재의 경계를 흐리게 함으로써 휴식을 통한 내면 회복과 그 안에서 느껴지는 고독과 외로움의 공존을 자아 탐구의 과정으로 확장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나는 파스텔 톤의 부드럽고 따뜻한 색채를 사용하여 시각적 안정감과 심리적 효과를 전달하고자 하였으며, 반복적인 색의 중첩과 미묘한 색 변화를 통해 깊이 있는 공간감을 창출하고, 그 공간 안에서 사색의 시간을 표현하였다.

나는 작업을 통해 나 자신을 돌아보는 동시에 관람자에게도 심리적, 감

정적 반응을 유도하고자 하였다. 소파와 배경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변화는 휴식을 취하는 동안 나의 존재가 확장되고 내면이 회복되는 과정을 회화적으로 반영하려는 시도였다.

나의 작업은 개인적인 경험과 심리적 배경을 중심으로 표현되었기 때문에 보다 다양한 사회적 배경이나 관점에서의 보편적 ‘휴식’의 개념을 다루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나의 내면이 표현된 작품으로 관람자들이 내가 의도한 바를 온전히 느낄 것이라 확신할 순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떠올렸던 편안한 공간과 색채를 통해 느꼈던 안정감이 관람자들에게 전달되고, 그들 역시 자신의 내면과 깊이 소통하며 스스로를 회복하고 치유하는 순간을 경험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앞으로의 작업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인식하고 극복하기 위해 보다 다양한 사회적 계층이나 문화적 맥락에서 바라본 ‘휴식’이라는 주제를 더욱 깊이 있게 탐구하고자 한다. 현대인의 정신 건강과 진정한 휴식에 기여할 수 있는 작품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며, 개인의 내면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의 소통과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예술적 접근을 모색해 나가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1. 단행본

김선현 저,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컬러, 색채심리학」, 이담북스, 2013

김정현 저, 「철학과 마음의 치유」, 책
세상, 2013

율리히 슈나벨(Ulrich Schnabel) 저, 김희상 역, 「아무것도 하지 않는 힘」,
가나 출판사, 2016

율리히 슈나벨(Ulrich Schnabel) 저, 김희상 역, 「행복의 중심, 휴식」, 가나
출판사, 2011

2. 학위 논문

이주희, 「현대 공간의 색채 언어 표현 특성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디자
인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5

3. 웹사이트

네이버 국어사전, 정신적 소진(burnout)

<https://ko.dict.naver.com/#/entry/koko/8929b5cb4d745b85813111bec9295146>

네이버 지식백과,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070231&cid=41991&categoryId=41991>

네이버 지식백과, ‘데페이즈망 기법’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59669&cid=42635&categoryId=42635>

아트&아트인, ‘의자 작가’ 지식철

<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126932>

위키백과, 동양철학의 ‘무’

[https://ko.wikipedia.org/wiki/%EB%AC%B4_\(%EC%B2%A0%ED%95%99\)](https://ko.wikipedia.org/wiki/%EB%AC%B4_(%EC%B2%A0%ED%95%99))

ABSTRACT

A Visual Study on Inner Rest Through Sofa Image and Color Fields

- Focusing on my works -

Jin, Min Jun
Dept. of Western Painting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 s University

This paper analyzes and describes works produced from 2023 to 2025 focusing on the content and form of works centered around the concept of 'rest' .

In my works, I tried to express the concept of 'rest' as a deeper and more comfortable state of the mind, rather than a simple physical rest, through expressions that cross the boundaries between reality and unreality, existence and absence.

The sofa that frequently appears in my works is the most common object we encounter in our daily lives, but to me, the sofa is not simply a physical object to lean on. Rather, it exists as a 'space of rest' where I can face my inner self and find mental stability in a short

moment of daily life.

In the process of working, I mainly used pastel-toned light green and yellow to express a soft and warm atmosphere. Pastel-toned colors not only provide visual comfort, but also have the effect of making the viewer feel psychological stability and inducing mental healing. In addition, the way the boundary between the sofa and the background is gradually blurred was an attempt to visually reveal the state of my existence gradually expanding and my inner self recovering. In a rapidly changing modern society, we are placed in a digital environment and fiercely competitive structure, and we are experiencing extreme stress and mental fatigue. The daily influx of information and the constant comparison and competition with others drive us into a state of mental burnout in our daily lives. The stress and fatigue experienced by modern people, if accumulated, not only lowers the quality of life, but can also cause mental health problems such as depression. Therefore, I believe that individuals today need to take a more active 'rest' .

However, despite this reality, many modern people tend to be stingy with internal recovery and rest, unable to rest comfortably even when resting due to constant self-censorship and social pressure.

As a child, I was often exposed to the external environment due to my working parents, and as a result, I spent a lot of time alone. Until my parents came home, I was unable to experience true 'rest' due to the constant pressure to do something, and had to find a space where I could rest on my own. This personal experience was naturally reflected in my work, and I tried to explore my own way of resting in the midst of a

repetitive and busy daily life and visualize that emotion through art. In this paper, I will look back on the process of my work's formation and examine what kind of formative approach I have attempted to visually implement the theme of 'space of rest'. Based on this, I will seek the direction of future development of my work, and I hope that my artistic expression will provide an opportunity for modern people living in stress and tension to escape from reality for a moment and experience inner recovery and mental healing.